



이번 국가 기도의 날을 준비하는 교계 지도자들

개신교인 53.5% “동성애는 죄” 기사연, 성인 1천명 대상 인식조사 결과 발표

“동성애가 죄인가”라는 질문에 개신교인 53.5%, 비개신교인 18.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반면, 개신교인 23%, 비개신교인 45%는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응답했다.

진보 성향의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사장 윤길수, 원장 김영주)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만 20~69세 성인 남·녀 1,000명(개신교인 800명 비개신교인 200명)을 대상으로 신앙관과, 남북관계 및 통일, 동성애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9일 발표했다(표본오차: 신뢰수준 95% 기준 ±3.1%p).

“기독교에만 구원” 45.6%

다른 종교나 가르침에도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개신교 신자들의 비율은 47.2%로 나타났다. 다른 종교나 가르침도 선하다고 보는 신자들의 비율은 58.0%였다. 그러나 45.6%는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다고 응답했다. 성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개신교인들의 비율은 50.9%였다.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개신교인들의 비율은 20.1%였다.

“북핵 한반도 평화 위협” 50.1%

“남북통일은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개신교인 57.3%가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고 응답했다. 비개신교인은 46.5%가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반대 입장은 개신교인 14.6%, 비개신교인 20.5%로 나타났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북한의 핵개발”이라고 답한 개신교인이 50.1%, 비개신교인이 45.5%였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북핵 해결”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49.2%와 52%로 가장 많았다.

동성애에 대한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동성애를 죄로 보는 경향은 20대 40.1%, 30대 51.9%, 40대 51.1%, 50대 57.7%, 60대 69.1%였다. 즉 연령대가 높을수록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경향성은 비개신교인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동성애가 질병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개신교인 45.2%, 비개신교인 23.5%가 동성애를 질병으로 인식했다. 또한 “동성애가 에이즈와 같은 질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개신교인 55.1%, 비개신교인 3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제3차 베델 신학 강좌- C. S. 루이스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가 제3차 베델 신학 강좌로 “C. S. 루이스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오는 4월 13일(금)부터 15일(주일)까지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 기쁨의교회 담임, 웨스트민스터신학교 겸임교수), 심현찬 목사(위싱

턴 트리니티연구원 원장, 서울 루이스 컨퍼런스 디렉터), 정성욱 목사(덴버신학교 교수, 큐리오스 인터내셔널 대표)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C. S. 루이스의 생애와 주요 작품들을 통해 순전한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 배우고 조명하게 된다.

문의) 949-854-4010

“우리 모두 연합해 미국을 위해 기도하자”

올해도 남가주 한인들이 미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 매년 5월 첫째 목요일에 미 전역에서 열리는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을 맞이해 한인 교계는 자마(JAMA)와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가 주관하고 OC교협과 OC목사회,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여성목사회, 성시화운동, 순 무브먼트, HYM,

CMF, 미스바기도운동이 공동 주최하는 가운데 국가 기도의 날 행사를 한다. 5월 3일(목) 주님세운교회(박성규 목사,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약 2시간에 걸쳐 기도회를 연다. 설교는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가 하며 여러 교계 지도자들이 나와 기도회를 인도할 예정이다.

전 미국인들이 함께 기도할 올해의 주제 성구는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이며 주제는 “미국을 위해 기도하라-연합(Pray for America-UNITY)”이다. 올해도 미 전역 4만 7천여 곳 이상에서 기도회가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암 예방과 진단에 관한 건강 세미나 열린다

본지와 실버티비 USA가 함께 웨스턴병원 잔 허 원장을 초청해 제1차 시니어 건강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시니어들의 편리하고 원활한 참석을 위해 오는 4월 14일(토) 오전 7시에 한인타운 8가와 버몬트 인근의 새일교회(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 가주노회 소속, 정병노 담임목사,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에서 개최된다.

세미나의 주제는 “암 예방과 진단”이다. 내과전문의인 허 원장은 웨스턴병원을 운영하며 환자 치료 뿐 아니라 “사람 이야기, 병 이야기”라는 책을 저술하는 등 예방 의학에



LA 한인타운 웨스턴 길과 4가에 위치한 웨스턴병원의 직원들. 사진 가운데가 허 원장.

도 조예가 깊다. 주최측은 매달 건강 세미나를 열고 시니어들에게 건강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미나 후에는 소정의 선물도 준비돼 있다. 문의) 213-434-1170

QCA가 미용 선고를 후원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당당히 봉사하세요!
 기독교보후원 소수에게만 드리는 특별학비

- 미용 헤어 토탈 자격증 1600시간 **\$2,900 (\$16,360)**
- 미용 스킨 자격증 600시간 **\$1,900 (\$7,900)**
- 미용 네일 자격증 400시간 **\$900 (\$2,900)**

*전 한국국가대표가 직접 가르치는 고급 기술반 \$1,000/8회

QCA Beauty College 준 박 T.(213)232-3837
 3660 Wilshire Blvd., #338 Los Angeles, CA 90010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ASE CERTIFIED LA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전기계통
 ■ Tune-Ups ■ 10K Service
 ■ Computer Diagnostic ■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5-3180

제1차 시니어 건강세미나

주제
암 예방·진단에 관한 건강세미나

120세 건강시대에 꼭 필요한 건강정보를 드리는 세미나에 시니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 2018년 4월 14일 오전 7시
 ■ 장소 : 새일교회 (8가와 웨스트모어랜드)
 ■ 주소 : 760 S Westmoreland Ave, LA, CA 90005
 ■ 문의 : T. (213) 434-1170

강사 : 의학박사 **잔 허** (내과전문의 M.D)

주최 : 기독교일보, 실버티비USA | 후원 : 웨스턴병원, 지업(Z-UP)전동 거꾸리, 후지미(FUJIMI) 마사지 체어, LOLC 미끄럼방지 매트

한인기독교상담소 칼럼

대화의 기술

평소 우리는 친구, 가족, 직장 동료 등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한다. 대화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사소한 말 한마디가 곤란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 친구, 직장 물건을 사고팔 때도 대화의 기술은 필요하다.



김소영 상담원
한인기독교상담소

대화란 무엇일까? 대화는 독백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다. 내가 전달하고 싶은 말을 알려주고 지시하는 것은 대화라고 볼 수 없다.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내 의사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중심인 소통의 방법이다. 따라서 훌륭한 대화의 기술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상대방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잘 듣고 이해하는 기술이다. 즉 대화는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입과 귀를 이용해서 서로의 마음을 듣는 것이다.

먼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오프라 윈프리는 그의 책 ‘오프라 윈프리의 대화법’에서 “겸손과 배려로 상대방의 가슴을 노크하라”는 표현을 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과 상대의 위치보다 항상 조금 낮게 자신을 놓으며,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소통의 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하나님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낮추어 성육신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마음 표현의 극치가 아니겠는가! 우리 수준에 맞추어 오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수준에 맞추어 자세를 겸손히 하고 마음을 표현하고 또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대화를 잘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마음이 준비되었다면, 실천 대화의 첫 단계는 잘 들어야 한다. 미국의 리더십 전문가 스티븐 코비는 “듣기는 대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다음에 내가 할 말을 생각하느라 상대방의 말을 건성으로 듣기 쉽다. 대화는 존중과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가 경청을 통해 충족되었을 때 지속할 수 있다. 적극적인 경청을 위해서 비언어적인 표현으로부터 감정을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들으며, 또한 공감한 내용을 분명하고 지지하는 자세로 진지하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에게 심리적 여유를 주기 위한 태도이다. 효과적으로 경청하기 위해서는, 배려해 주는 태도와 이해하려는 성실한 자세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실천 대화의 두 번째 단계는 말하는 기법이다. 말하는 방법에서도 혼자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호응하고, 배려하는 것을 잘 해야 한다. 대화는 ‘무엇을 말하느냐’라기보다 ‘어떻게 반응하며 표현하는가’이기에, 상대를 향한 바른 시선, 말하는 속도 등 모든 요소를 통해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그렇기에 대화를 나누면서 적절한 맞장구나 추임새 또는 상대가 반복하면서 이야기 한 내용을 내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

방의 의견을 들을 때 머리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나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 솔직한 감정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헨리 클라우드는 ‘No! 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대화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성공적인 대면에서는 언제나 은혜와 진실이 균형을 이룬다. 여기서 은혜란 당신이 관계를 위한 뿐 아니라 상대방의 편이 되거나 그를 ‘위하는’ 것을 말한다. 진실이란 당신이 문제에 대해 말할 필요가 있는 모든 ‘사실’을 의미한다. 자기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할수록 대면 성공의 가능성은 커진다.”고 말했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하되, 상대방이 듣기 원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대를 배려한다는 것은 상대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대하는 것이지만 때로 상대의 기분이 나빠지더라도 상대에게 유익한 내용을 전하는 것이 좋은 대화이다.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어떠한 ‘대화’의 모습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튼튼할 수도 약할 수도 있다. 것처럼 대화는 관계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 타고난 소통의 능력자도 있지만, 훈련으로 개발될 수 있는 것이 대화의 기술이다. 나는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가, 나는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뭔가 문제가 보인다면, 내가 개발해야 할 대화의 기술은 어떤 부분인지 한번 고민해 보자.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며 우리도 그러한 자세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한 번 점검해 보기를 바란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쟁반에 금 사과니라”(잠25:11) 문의) 한인기독교상담소 (kaccla.net) 전화) 213-738-6930 (LA) 657-529-1133 (OC)

전했다. 창대교회는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에 위치해 있으며 전화는 951-966-9191로 하면 된다.



이춘준 목사

성결의 복음으로 변화를!

제39회 총회, 2세 교회·상조회 등 다양한 안건

미주성결교회(이상복 총회장) 제 39회 총회가 오는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LA 시온성결교회(최경환 목사)에서 개최된다. 미주에 현재 11개 지방회, 200여 교회가 소속된 이교단은 한국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출신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민으로 면서 지난 1980년 창립됐다.

회 설립 추진, 교역자 상조회 발족, 지교회 부흥과 선교 전략 등 여러 중요 현안들을 결정하게 된다.



이상복 총회장

‘성결의 복음으로 변화와 성숙’이란 주제로 모이는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 차원에서의 영어권 2세 교

회 예배를 시 작으로 총회가 열려 각종 회의와 목사안수식,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 후원 행사까지 다양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

나성제일교회 유초등부 목회자 청빙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나성제일교회(김문수 담임목사)가 유초등부를 담당할 목회자를 청빙한다. 이교회는 1967년 창립돼 최근 50주년을 맞이하기도 했다.

대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다면 영어는 기본 의사소통 능력만 있어도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역하는 데에 신분 상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김문수 목사

교회 측은 “나성제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유일한 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라고 소개하며 “김문수 목사님께서 담임목사로 부임하신 이후로 새로운 비전을 품고 믿음의 도약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가족관계, 사역경력, 학력을 포함한 이력서, 신앙 간증 등을 이메일 lakfpc@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마감 시간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문의) 213-388-7101

유초등부 목회자는 이중언어가 가능한 사람이어야 하지만 다음 세



복음대학교의 전경 ©복음대학교

재미고신 복음대학교 후원의 밤

오는 4월 28일 오후 5시

에너하임에 위치한 복음대학교(Evangelia University, 총장 신현국 목사)가 오는 4월 28일(토) 오후 5시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재미고신총회 교단 신학교인 복음대학교는 TRACS의 인가를 받아 정식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학 교육과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된 복음대학교가 그리스도께 헌신된 동역자들을 모시고 후원의 밤을 연다”면서 “뜨거운 기도와 격려로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소) 2660 W. Woodland Dr. # 200 Anaheim, CA 92801 전화) 714-527-0691

학교 측은 “성경 중심의 개혁 신

창대교회에서 경로대잔치

오는 4월 29일(주일) 오후 4시 창대교회에서 샌버나디노 지역 경로대잔치가 열린다. 창대교회는 이 지역의 노인들을 이 행사에 초청해 음식을 대접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

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춘준 담임목사는 “무척이나 더운 날씨가 시작됐다.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Since 1999 LA 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여름학교 모집 6/4 - 7/27 New Covenant Academy www.e-nca.org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입학 문의 (213)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 되는 총회 만들겠다”

‘한국 C&MA’ 얼라이언스 한국총회 설립 감사예배

얼라이언스 한국총회(The Alliance Church, 이하 얼라이언스) 설립 감사예배가 8일 오후 안산 살롬 교회에서 개최됐다. 얼라이언스 한국총회는 미국 콜로라도에 본부가 있는 C&MA 교단의 한국총회 명칭이다.

1부 예배는 우리성문교회의 찬양과 경배 후 신다윗 목사(얼라이언스 사무총장) 집례로 문형준 목사(C&MA 미주 한인총회 증경감독)의 기도, 이한규 목사(분당셋별교회 담임목사)의 성경봉독, 정수호 목사-장제순 장로의 특송 후, C&MA 총재 존 스텐보 박사(John Stumbo)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따르는 가족에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존 스텐보 박사는 “여러분이 C&MA 교단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더욱 감사드립니다”며 “이 세상이, 한국이 C&MA 교단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중요치 않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열정은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기 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텐보 박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단이 설립된 이유”라며 “우리의 연합이 그저 연합에만 집중한다면 더 이상 연합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 때,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C&MA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모인 하나의 위대한 가족”이라며 “한국총회가 세워지는 것이 기쁜 이유는, 여러분이 세상을 위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C&MA와의 강한 결합이 너무 귀하다. 여러분의 여권은 제 여권보다 많은 곳을 갈 수 있다”고 전했다.

2부는 김수태 목사(얼라이언스 이사장)의 경과보고 후 축하 및 권면이 이어졌다. C&MA 부총재 로실리오 로만 목사(Rosilio Roman)는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게 돼 영광이다. 이 모든 것이 이곳 지도자들의 꿈으로부터 시작됐다”며 “그

리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여 그 꿈의 실현을 함께 축하하고 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셨고,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기성 총회장 신상범 목사는 “한국에는 없었지만, C&MA 교단에 대해 형제적인 사랑과 관심을 갖고 그동안 지켜봐 왔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총회를 갖게 돼 너무 기쁘고, 하나의 형제가 생겨 든든하다”며 “한국에는 이단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얼라이언스’라는 이름대로 선교를 위한 동맹을 규합하고 지향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 예성 총회장 직무대행 윤기순 목사, OMS 한국지부장 태수진 박사(Susan Truitt), 아신대 총장 김영욱 박사, 서울신대 총장 노세영 박사, 성경대 총장 윤동철 박사, 나사렛대 총장 임승안 박사 등이 축하인사를 전했다.

답사에 나선 얼라이언스 총회장 정길진 목사는 “소년 다윗과 같이 작지만 건강하고 능력 있는 얼라이언스 총회가 되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자 우선 되어서 (갈2:20)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길 원한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는 얼라이언스 가족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총재님 말씀처럼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길 기도한다”고 했다.

예배는 신다윗 목사의 감사패 증정과 광고, 김길 목사(C&MA 미주 한인총회 증경감독)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얼라이언스 한국총회는 2017년 7월 6일 관계자들이 한국 C&MA 교단 설립 필요성 논의를 시작했고, 7월 28일 한국총회 명칭을 제정하고 주요 임원과 이사 12인을 선임했다. 8월 17일 사단법인 발족에 따른 정관과 총회법 제정을 협의했고, 10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세청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했다.

이후 10월 17일 C&MA 부총재 로만 목사와 C&MA 미주 한인총회 백한영 감독이 한국총회 설립에 동의했으며, 2018년 2월 28일 김수태



정길진 한국총회 총회장(왼쪽)이 존 스텐보 C&MA 총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목사의 미국 방문시 백한영 감독에게 한인총회 회원 분리 서류를 전달했다.

◆선교 연합체이자 성경교회의 모체

19세기 말 시작된 미국 선교운동 중 가장 강력하고 조직적인 선교운동인 얼라이언스(C&MA,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는 세계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를 위해 세워진 선교 연합체이다. C&MA는 1887년 북장로교 목사인 알버트 심슨 박사(A. B. Simpson)가 설립했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았으나 성령충만을 경험한 후 열정적인 전도자가 됐고, ‘4중복음’을 내걸고 대규모 선교대회를 열었다. 그 중 길보른(Kilbourn)과 카우만(Cowman)이 은혜를 받고 일본으로 파송돼 OMS(Oriental Missionary Society)를 창설한다. 1907년 여기서 정빈, 김상준 등 조선의 젊은이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이는 현재 한국 성경교회의 모태가 됐다.

이러한 이유로 C&MA는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는 대신 기성-예성 총회와 협력하는 방향으로 사역해 왔으나, 최근 한국에서 사역하던 목회자들과 미국에서 귀국한 목회자들



정길진 총회장

이 뜻을 모아 새롭게 선교 연합체 성격의 교단을 발족하게 됐다. C&MA는 미국에서 900여 명, 캐나다에서 3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세계 85개국으로 파송돼 사역하고 있다. 전 세계에 25,000여 교회와 650만여 명의 성도가 소속돼 있으며, 전 세계 얼라이언스 교회는 ‘얼라이언스 세계연대(Alliance World Fellowship)로 연결돼 있다.

신학 노선은 성경의 무오성을 굳건히 믿는 보수적 신학으로, 성령과 말씀의 균형을 강력히 주장하는 온건한 복음주의이다.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칼빈주의적 신학과 믿는 자에게 세례를 줘야 한다는 침례교적 구원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결하게 될 수 있다는 웨슬리안 성결관, 오늘날 우리를 치유하심을 믿는 은사주의적 신앙이 다 포함되지만, 은사에 대해서는 하나님 역사를 인정하되 은사 중심 신앙은 배제하는 보수 중도 노선이다.

주요 사역은 △강력한 선교 연합체 수립 △열방에 선교사 파송 △한국 내 다민족 복음화 △시대별 선도하는 목회자 양성 △선교 지향적 글로벌 청소년 사역 △국제적 인적 교류 확장(스포츠 선교, 신학생 교환 프로그램) △얼라이언스 세계 사역에 동참 등이다.

얼라이언스 한국총회 회장을 맡게 된 정길진 목사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들을 만들고 지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며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세계 선교에 대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한영 감독은 “미국 한인교회들 100여 곳이 가입돼 있고, 한국에서도 여러 목회자들이 ‘Jesus Only’라는 정신으로 목회하면서 전 세계를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며 “얼라이언스는 교단에서 전적으로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어 모금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대신 선교사들이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정해 주는 곳으로 가야 한다. 단순히 미전도종족이 아니라, 그 지역 자체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웅 기자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일 하세요?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라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J.C Superstar 뮤지컬 단원모집

대상 : 초, 중, 고, 대

고문위원 :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

자문위원 : SBS 생활의 달인, 꾸러기 탐구생활 이상호PD

아이비 유학 Torrance / Irvine / LA shelbykwon65@gmail.com

T.(949)329-8222, (949)864-9162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미디어벽, 롤업배너, 현수막

Easter SUNDAY 예수, 부활하셨네

여름성경학교 Vacation Bible School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60>

EM 군단과 AM 군단이 만나다

(영어권 선교) (아랍어권 선교)

필자는 이 시대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선교 부흥이라고 주장한다. 선교는 전 그리스도인의 전 세대가 다 일어나야 한다. 교회의 목사나 특정한 소수만이 참여하는 선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총동원돼 남아 있는 미전도 종족을 필두로 모든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이슬람권 선교지에 가서 강의나 설교를 할 때 강단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 필자가 말하면 그 말을 영어권 선교사가 통역한다. 듣는 이 가운데 아랍어권이 있을 때는 또 그 옆에서 영어를 아랍어로 통역하는 풍경이 그려진다. 20분 설교가 1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그러나 몇 년 사이 풍경이 변하고 있다. 영어와 아랍어가 만났다. 요사이 미주 중심의 영어권 학생, 청년 선교사들이 이슬람권 지역에 대거 집중하고 있다. 물론 우리 미주 한인 2세, 3세 청년들이 그들 한 가운데 서 있다. 이민 1세들의 뜨거운 신앙 열정의 유산을 이어 받고 또한 19세기말 무렵 부흥했던 미국의 선교 부흥의 유산까지 이어 받아 우리의 강력한 2세 선교군단이 지금 일어서고 있다.

그들은 아랍어를 습득하여 현지에서 아랍어로 전도하고 아랍어로 예배 드리고 아랍어로 교제 하면서 아랍의 신앙 리더십들과 영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제 아랍어권의 학생, 청년들이 선교 부흥의 주역이 되어 가고 있다. 그들은 학교에서 또 독학으로 영어를 습득하고 있다. 이미 이집트, 레바논, 이란, 파키스탄 등에는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청년 그리스도 군단이 무수히 많아졌다. 그들이 지금 가는 곳마다 다민족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 중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아랍의 나라들로 퍼지면서 시리아 교회가 전 아랍권 나라에 엄청난 속도로 세워지고 있다. 그들의 리더십들은 20대, 30대의 청년들이며 영어를 습득한 청년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이 다른 어느 민족보다 많은 것에 놀랐다. 그들이 같이 찬양을 부를 때, 동시에 영어와 아랍어로 노래한다. 강력하고 은혜롭다.

필자가 수없이 본 다민족 예배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한인 EM들은 예배를 이끄는 리더십이다. 그들의 모습만 보아도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감사하다. 또한 그들의 영적 네트워크는 정말 파워풀하다. 예를 들면, 필자의 교회에서 파송한 대학생 선교사 2명이 I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교회 한 청년 선교사는 E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다. 근래에 E 나라의 현자인 청년 선교사들이 여러 명 1년간 I 나라로 선교를 갔다. I 나라에 있던 우리 교회 대학생 선교팀들과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었다. 그들이 교제를 하며 E 나라에 있는 우리 교회 청년 선교사를 아는가 몰랐더니, 자기 나라에서 너무 친하게 같이 선교 사역하고 예배 드렸다고 대답했다.

그런 네트워크로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한 형제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 그들을 보면 천국이 보인다. 천국엔 마치 한국인들만 있을 것 같은 한국 교회 분위기가 아니다. 미국에 와서까지도 일평생 자국어 예배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모국어로 살다 가는 천국행은 우리 1세대로 끝난다. 이제는 다민족 예배 공동체다. 그것이 요한 계시록의 천상의 예배 장면이기도 하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계7:9).” 지금 그들이 이 예배를 실현시키고 있다.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행복 생태계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지금까지 인류는 행복을 원했지만 행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은 미흡했습니다. 행복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인류는 늘 행복을 추구했지만 막연했고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학문적 주제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행복학(Happiology)이 관심을 받습니다만 아직 행복에 대한 연구와 노력들은 미흡합니다.

행복이 학계에 큰 주목을 끌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행복에 대한 정의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대로마의 바르르(Varre)는 로마시대에 행복에 대해 288개의 개념이 있다고 말합니다. 행복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문화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릅니다. 바바라 키퍼라는 사람은 일생 동안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를 정리하여 책으로 펴냈는데 행복을 14,00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최근 각광을 받는 행복학의 공헌은 행복의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행복학은 행복의 네 개의 얼굴을 말합니다. 행복의 첫째 얼굴은 기쁨(Joy)입니다. 긍정심리학을 주장한 마틴 셀리그만은 즐거운 삶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행복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행복은 아니지만 행복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기쁨 대신 재미(Fun)나 쾌락(Pleasure)을 탐닉하다 삶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둘째 얼굴은 만족(Satisfaction)입니다. 만족할 때에 행복이 있습니다. 만족 대신 불만과 불평이 있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일에 대해,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만족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행복의 셋째 얼굴은 보람(Meaning)입니다. 보람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합니다. 모든 인생은 보람을 먹고 삽니다. 자신의 삶에 보람을 느낄 때 행복하게 됩니다. 보람은 자신의 삶의 생산성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보람이 행복입니다.

행복의 넷째 얼굴은 몰입(Engagement 혹은 Flow)입니다. 빠져드는 것입니다. 연애감정 같은 것입니다. 몰입의 행복을 상술로 이용하는 것이 게임입니다. 게임이나 오락에 몰입된 순간은 행복합니다. 물론 게임에 몰입은 건강치 못한 몰입입니다. 그러나 몰입에 쾌감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도덕성과 생산성이 있는 몰입을 즐깁니다.

행복학자들은 이런 행복의 네 가지 얼굴을 빛나게 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제시합니다. 두 종류의 활동을 말합니다. 인지적 활동과 행위적 활동입니다. 인지적 활동(Cognitive activities)들은 감사하기, 참회하기, 용서하기, 사랑하기, 긍휼히 여기기 등입니다. 또 행위적 활동(Behavioral activities)은 웃기, 춤추기, 운동하기, 여행하기, 봉사하기 등입니다. 이런 활동들이 행복을 고양시키는 활동들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인지적 활동들 즉, 감사하고, 반성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행복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몸으로 하는 행위적 활동들 즉, 웃기, 친절을 베풀기, 춤추기, 봉사하기, 운동하기, 여행하기 등을 실천하면 행복의 꽃이 활짝 피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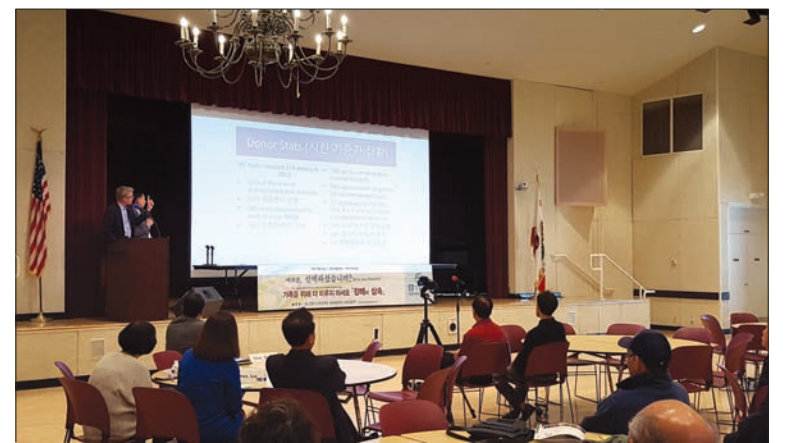
아름다운 마무리, 미리 준비하세요

소망 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가 지난 4월 5일(목)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라구나 우즈 빌리지에서 제5회 소망 포럼을 개최했다. 라구나 우즈 빌리지 한인회의 요청에 따라 열린 이번 포럼의 주제는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장례 절차와 상속-가족을 위해 더 미루지 마세요”였으며 관련 전문가 3명이 강연하고 200여 명의 주민들과 봉사자들이 참석했다.

라구나 우즈 빌리지 한인회 정배드로 회장의 환영사 후, 주제 강연에 앞서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테너 김일두 씨와 소망합창단의 ‘소망의 노래’에 이어 김일두 씨의 특송을 들은 후 유분자 이사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유 이사장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준비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어느 것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 발제는 UC얼바인의 시신기증 프로그램 부장인 마크 부룩스 씨부터 시작되었다. 한인사회에서 늘어난 시신기증자 수에 대해 감사



소망 소사이어티가 제5회 소망 포럼을 라구나 우즈 빌리지에서 개최했다.

표하고 시신기증자 상황과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디그니티 메모리얼에서 나온 루페 마티즈 매니저와 조 오텀 씨는 장례 준비의 중요성과 준비,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장례 업체를 선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사로 나선 상속 전문 변호사인 월터 최 변호사는 최근에 개정된 메디칼 관련 상속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상속법이 어떻게 다른지, 주택이나 기업,

현금 등 남김 유산이 있을 경우, 미리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해 놓아야 사후에 유족들이 시간과 재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최 변호사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자손들이 편하고, 본인들의 노후를 충실히 즐길 수 있다고 준비를 권고하였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주제 강연과 관련된 여러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한편, 행사장에서는 관련 업체 및 후원사에서 부스를 마련하고 각종 정보와 선물을 제공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사누 아르멜(SANOU ARMEL)



힘모아 코끼리 다리를 고쳐 줍시다!

사누 아르멜(Sanou Armel)!

서부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에 사는 17세 소년입니다. 5살부터 작은 흑으로 생긴 것이 커지면서 코끼리 다리가 되었습니다!

후원 문의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십자가에 달려 하신 말씀들

요한복음 19:26-30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구약에서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동정 탄생하셨습니다. 공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이 되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임 당하시기로 구약에서부터 작정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상철언(1): 로마 군병들의 구원을 위한 간구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추궁하지 말아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로마 군병의 사형 집행이 자신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자신들이 원한이 있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들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가상철언(2): 회개한 강도의 구원 선포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매달린 강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구원해 달라!'며 빈정대었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강도가 그 모습을 보며 그 사람을 질책했습니다. '너와 나는 우리가 행한 일에 벌을 받아 죽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지만, 우리 가운데 못 박힌 예수님은 하신 일 중에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라는 신앙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철저한 회개 기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눅23:43)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형틀에 피 흘리며 죽어 가면서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상철언(3):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심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래를 바라보니 어머니 마리아가 울고 있고,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그 옆에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금이 기회라 생각하시고, 육신의 아들로서 못한 효도를 다하기 위해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십니다. 본문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제자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한은 마리아의 언니의 아들이어서 생질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 대신에 아들로 생각하여 요한의 효도를 받으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듣고 그 시간부터 마리아를 어머니로 여겨 지극 정성으로 아들 된 도리를 다하게 됩니다. 그가 예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마리아를 모시고 다니면서 효를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류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육신의 부모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효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믿지도 않고 지옥 길을 고집하는 부모님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최상의 효도입니다.

가상철언(4):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번째 말씀은 구약을 인용하셨습니다. "제 구 시 즘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하는 뜻이라"(마 27:46)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불평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양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불평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불평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말씀을 읽는 성도로 하여금 자신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완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항복하게 만듭니다. 이런 고통은 실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서둘러 회개하고, 구원받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상철언(5): 신 포도주를 거절하심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 2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

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옆에 있던 사람이 해움이라는 스펀지와 비슷한 것을 막대기 끝에 달고 신 포도주를 적시어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를 몰약 탄 신 포도주라고 합니다. 이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 값을 모두 지고 가시기 위해 마취제마저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마음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고통을 하나도 감하지 않고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봉사의 기회 앞에 자신의 환경과 여건만 생각하며 못한다고 한다면, 이는 신앙의 의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이런 자가 어찌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상철언(6): 다 이루었다

여섯 번째로는 본문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자,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이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은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 받고 하늘나라로 들어갈 길이 열렸습니다. 이를 두고 다 이루셨다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보고,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이 이끌리며 쓰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과정을 거쳐 하늘나라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서 하늘나라, 영생복락의 영광스런 주인공들로 꼭 결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상철언(7):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다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모델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분은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천국소망을 가꾸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상철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택한 백성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유익이 되는 말과 행동만 하셨습니다. 이를 우리의 모델로 삼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만 충성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Practicing Excellence with Winning Strategy

JEONG & LIKENS는 상법, 민사, 지적재산권, 노동법, 부동산, 건설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상법/민사

- 물품/서비스 거래 계약 위반
- 채권/채무/파산 관련 소송
-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 비즈니스 파트너 간 소송
- Non-profit 협회 관련 소송
- 장애자법(ADA) 관련 소송
- 비즈니스 관련 보험사 상대 소송

지적재산권

- 디자인 등 저작권 등록
- 의류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
- 영화, 음악, 방송 관련 저작권 소송
- 상표권 등록 관련 소송
- 상표권 침해 관련 소송

노동법

- 고용계약서/직원핸드북 작성
- 오버타임 등 노동법 관련 소송
- 차별, 보복 행위 관련 소송
- 부당해고 관련 소송

부동산/건설

- 부동산 매매/에스크로 관련 분쟁
- 비즈니스 매매 관련 소송
- 커머셜 리스 관련 분쟁
- 은행과 커머셜론 관련 분쟁
- 건설 관련 분쟁
- Mechanics lien/stop notice 관련 소송

- 다수의 대형 로펌 상대 소송 승소
- 미주류 대형기업을 상대로한 다수의 승소 경험
 - 1) 미국 소프트웨어 대기업이 제기한 지적재산권 소송 **성공적 방어**
 - 2) 대형 언론사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성공적 방어**
 - 3) 미 대형 군수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승소**
 - 4) 대형 부동산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승소**
 - 5) 전문 변호사들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건설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 6) 10년이 지난 전문가 업무상 과실 사건, 공소시효문제 해결하여 **승소**
- 수입 거부된 소송, 전문 변호사들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불리한 소송 **이례적 승소로 해결**
- 지적 재산권, 부동산, 채권추심, 건설, 노동법 등 관련 다수의 상법 소송 승소
- 중소기업중앙회, 한인의류협회, 한인부동산협회 및 다수의 기업에 고문변호사로 활동

정찬용

Loyola Law School, J.D.
Senior Articles Editor,
Loyola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Review
Published an article on Antitrust Law, Loyola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Review
Won 2006 Annual Writing Competitio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Law & Management



Tel. 213.688.2001

1055 W. 7th Street, Suite 2280
Los Angeles, CA 90017

J&L JEONG & LIKENS, L.C.
www.jeonglikens.com

FABIEN FINANCIAL INC.

무담보 비즈니스 론 Fabien에 맡기시면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용자, 쉽고 확실하게 해결합니다.

은행에서 비즈니스 용자를 거절당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 No 크레딧 Bad 크레딧, 용자 문제 없습니다.
- ✓ 세금보고서가 없이도 용자가 가능합니다.
- ✓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누구나 용자 가능합니다.
- ✓ 비즈니스 매매 용자

10K~500K

까지

캐쉬 어드밴스

SBA 용자

상업용 부동산

하드머니 [플리핑 용자/Flipping Loan]

www.FabienFinancial.com

금융 전문가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T. 714.264.7288 | 844.380.9990

fabienfinancial@gmail.com

6131 Orangethorpe Ave #400 . Buena Park, CA 90620 (Center Park 빌딩 내)

Financial Freedom을 위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Business Service

- 주식회사 설립
- 비즈니스 크레딧 Build Up
- 상업용자
- 비즈니스 매매 상담

Real Estate Service

- 리스팅 전문
- Flipping House 투자상담
- Flipping House 용자상담
- Hard Money



Love Foundation
LAW GROUP

러브파운데이션

LDA#315 / Bond 가입업체 / 714.227.7358
6131 Orangethorpe Ave. #400 Buena Park, CA 90620 (Center Park 빌딩 내)
Premier Services Realty DRE #01895705

Dr. David Oh 법학박사 데이빗 오

- Azusa Pacific University 졸업
- Azusa Pacific University 석사
- Graduate School of Houston 박사
- Global Financial Service Certificate 수료



PCUSA 대서양한미노회 모임 ©베다니장로교회 제공

PCUSA 대서양한미노회 애틀랜타에서 동성애·세속화 반대, 미 전역에서 가입 가능

미국장로교단(PCUSA) 소속 한인노회인 대서양한미노회가 4월 2~3일 양일간 베다니장로교회(담임 최병호 목사)에서 32명의 노회원이 모인 가운데 노회 모임을 가졌다.

대서양한미노회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장로교단 안에는 170개 노회가 있으며 그 중에는 동성애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 3개의 한미노회(동부, 중부, 대서양)가 있다. 대서양한미노회는 델라웨어, 매릴랜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복음적인 한인교회들이 모여 20년 전에 미국장로교단 안에 설립되었다.

총회를 연방정부에 비유한다면, 노회는 주정부와 같다. 미국장로교단 안에서 한인교회들이 주정부와 같은 자치 행정부를 가지고 주정부와 같이 교단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노회는 사법권, 안수권, 재산권을 가진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교단내 행정기관이다.

대서양한미노회는 “한미노회는 미국장로교단 안에서 제2의 종교개혁과 같은 복음적인 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서양 지역의 경계를 넘어 미국 전역에서 한인교회 회원을 받을 수 있는 비지역 노회

로 전국적인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미국장로교단 안에서 한미노회는 동성애와 비성경적인 세속화에 대항하여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복음적인 신앙의 청정지역이다. 미국장로교단 내에서 복음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한인교회들은 미국 전역에서 언제든지 한미노회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서양한미노회에는 36개 회원교회가 있으며 애틀랜타 지역에서 대서양한미노회에 가입한 교회는 베다니장로교회(최병호 목사), 조지아장로교회(최병기 목사), 4포인트교회(임기윤 목사), 시온장로교회(김대왕 목사), 갈릴리장로교회(김세준 목사), 사버나장로교회(남윤상 목사), 열린장로교회(박종식 목사), 에벤에셀교회(김창환 목사), 발도스타장로교회(조진영 목사) 등이다. 이들 교회는 지난 2012년 동성애를 거부하고 성경적인 신앙을 사수한다는 목적으로 대서양한미노회로 이전했다.

한미노회에 가입하기 원하는 교회는 대서양한미노회 부서기인 최병호 목사(678-428-5650)에게 연락하면 된다.

앤더슨 김 기자



스미스 주립교도소 교교 과정 졸업식

스미스 교도소에서 교교 과정 졸업식

조지아 주 교정국 역사상 최대 규모

글렌빌(Glennville) 소재 스미스 주립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의 2018년도 고등학교 졸업식이 지난달 말에 열렸다.

조지아 주 교정국 역사상 최대 인원의 수감자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은 이날 126명의 졸업생과 가족 그리고 그레고리 다이저 커미셔너 외 주 교정국 직원 등 350여 명의 축하객들이 함께했다. 이날 졸업생 최우수상은 독방 재소자가 수상했으며 수감을 차고 공부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수학해 얻은 것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

GMA(Global Mission Alliance) 김철식 선교사는 “교정국 측이 졸업생 중 한 명을 선정해 ‘형집행 정지’로 1년을 감형해, 지난 달 28일 출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제공했다. 이 특별 이벤트는 지난해 9월 졸업식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재소자들 가운데 모든 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자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다. 교정국 직원들은 격려의 메시지를 재소자들에게 희망을 줬다”고 설명했다.

김 선교사는 “졸업식을 통해 멀어졌던 수감자들과 가족들의 관계 회복에도 기여하고 있다. 재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으로 변화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장로교회 11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식사 배식을 담당했으며 김 선교사가 준비한 선물과 연합장로교회 1:1 멘토링 프로그램 팀에서 준비한 성경말씀 120여 부를 졸업생들에게 전달했다.

김 선교사는 교도관과 재소자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상담, 학업 지도, 식사 제공, 성경공부, 찬양 등을 함께 하고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이 출소해 사회에 나갔을 때,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졸업장은 꼭 필요하다. 스미스 교도소는 종신형 수감자가 30% 이상 수감된 곳으로 김철식 선교사와 김우식 장로가 사역하고 있다. 이들은 개개인에 맞춰 영화 상영, 성경공부, 찬양 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사역에 동참을 원하는 이나 출소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이는 yooskim2001@yahoo.co.kr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GMA는 5월 세례식 및 성찬식, 오는 8월 전도집회 그리고 12월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 및 콘서트를 준비할 예정이다. 윤수영 기자

서북미 예배자를 위한 음향 워크샵

서북미 지역 한인교회 예배자를 위한 교회 음향 워크샵이 오는 30일(월) 오후 1시, 타코마제일침례교회(담임 최성은 목사)에서 열린다. 박경배 대표(탐사운드)가 강사로 나서는 이번 워크샵은 기초 음향의 이해, 음향 엔지니어의 역할, 음향 디자인, 마이크 원리, 강단 마이크 사용법,

무선 마이크 활용, 스피커, 앰프, 디지털 콘솔 등 장비의 활용 등 교회 음향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익히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랑의교회 음향감독을 지낸 박대표는 중앙대학교 외래교수(문화콘텐츠)와 무대예술전문인 국가고시 출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469-353-3446



LA 지역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사를 배격하며, 이단기정음치로 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새벽 -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장태원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1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씨니킴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침례 오전 8:0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향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엘리아 김 담임목사
 주일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00
 수요일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믿는다고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 939-7323 / www.kwpclo.org

서건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예배 오후 7: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10:00-오후 1:00
 한여름캠프 오후 1:30 오명여 회 오전 11:00-오후 6:00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여름캠프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전야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320-7240 Email: lasehil@21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교차로 First Baptist Church 옆에 있습니다.)

정병노 담임목사
 대예배 1부 오전 8:00 세각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목)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 (화-토)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박은중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믿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정장수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예배(월요일예배) (소매예배) 오전 11:00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박효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정학 사역, 십자가 사역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민종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침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장지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갯스윙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ffer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신용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령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부기도주일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 6시 30분(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스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종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일금회 오전 10:00-오후 1:00

김성수 담임목사

무리에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월-금) 오전 6: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전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주일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공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매주)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매주) 오후 11:00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절문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현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 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매일(월-토)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경대원회 금요일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아름답도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모임(월-토)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8:00 2부 오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715-9902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절문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김진표 의원(왼쪽)과 채의송 장로(오른쪽)가 소강석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반도 평화 위한 한 송이 꽃 되길

국가조찬기도회 감사예배 및 기도회 개최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회장 채의송 장로)와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가 8일 저녁 7시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에서 제50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감사예배 및 한반도 평화위원과 복음화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3월 8일 일산 킨텍스에서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던 제50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감사하고, 아울러 이를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가 임하고 복음화의 길이 열릴 것을 기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1부 감사예배 및 기도회는 두상달장로(국가조찬기도회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김병규 장로(증경회장)의 기도, 강국창·주대준 장로(이상 부회장)의 성경봉독, 이승희 목사(예장 합동 부총회장)의 설교, 정근모·노승숙 장로(이상 증경회장)·서대천 목사(홀리씨즈교회)의 특별기도, 김희선 장로(후원회장)의 헌금기도, 국가조찬기도회 임원들의 헌금특송,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원로)의 축도로 드렸다.

‘우리도 그 때 그들처럼!’(느헤미야 1:6~11, 고린도전서 12:14~1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이승희 목사는 “성경에는 그 때 그들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며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조국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느헤미야는 왕의 술을 맡았던 매우 높은 직책에 있었지만 조국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 이 시대, 우리는 마스크를 통해 가치관이 무너지고 도덕과 윤리가 붕괴되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조국의 아픔을 더욱 가슴에 품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자. 우리마저 외면하면 그 누가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겠는가”라고 역설했다.

설교 후 참석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세

계선교 △예수 보혈의 복음화와 한국교회의 연합을 위해 각각 기도했다.

2부 순서는 국가조찬기도회의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의 자리로 치렀다. 회장인 채의송 장로는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에 취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라고 생각했다. 바로 기도”라며 “하나님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난 제50회 국가조찬기도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 또 우리의 기도가 한반도 통일의 길을 닦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조찬기도회 회장인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그는 “지난 제50주년, 희년의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소강석 목사님을 비롯한 새에덴교회 교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자리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일제에서 해방되고 지금까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다”며 “이는 국민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덕분이지만, 한편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여러 국가적 과업이 있지만, 이 모든 것도 지금까지처럼 잘 극복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영진 장로(초대회장)와 이경숙 권사(증경회장)가 격려사를 전했다. 채의송 장로와 김진표 의원이 소강석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소강석 목사는 답사에서 “세계 화약고에 묻혀 있는 냉혹한 한반도 땅에 따뜻한 봄의 기운이 오고 있다. 이 봄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염원과 바람에 의해서 오게 되었다”며 “그런데 이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국가조찬기도회였다. 봄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꽃 한 송이 한 송이에 의해서 오는 것처럼, 국가조찬기도회라고 하는 꽃 한 송이가 평화의 봄을 오게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교육부, 총신대 김영우 총장 파면 요구

“교비횡령 등 비리 사실로” 이의신청기간 후 확정

교육부가 총신대 김영우 총장을 교비횡령 등을 이유로 파면할 것을 요구하고, 법인사회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18명에 대해선 총장 징계·선임 절차 미준수 및 직무 해태, 용역업체 직원 동원·인술 등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총신대 사태와 관련, 이 학교를 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단, 교육부의 이 같은 요구와 조치는 30일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현 총장에 대해 제보된 교비횡령 등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고, 총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 및 이사회 운영 간여 등 법인과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만연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교육부의 주요 지적사항은 △결원 임원 미보충 등 법인분야 7건 △임시휴업 결정 부당, 학생 징계 부당 등 학사·입시 분야 5건 △교직원 임용 부당 등 3건 △소송비 및 인사구입비 교비지출 등 8건이다.

특히 △총장 징계 미이행 △정관 변경 부당 △규정 제·개정 부당 △대학원 입학 전형 부당 △교원과 직원 채용 부당 △교비회계 지출 부당 △평생교육원 운영 부당 △용역업체 직원 동원 부당 등은 학내 분규 사태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교육

부는 지적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으로 “(김영우) 총장은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교원인사 소송 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2천2백5십9만8천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며 “학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목사 또는 장로의 선불용으로 구입한 인사대금 4천5백4십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했다”고 했다.

교육부는 “선불구입비 및 소송비 등 교비회계 부당 지출, 교직원 자녀 장학금 부당 지급 및 징계 처분 직원 급여 부당 지급, 임시휴업 부당 결정, 교직원 채용 부당 등에 대해 총장 등 관련자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2억 8천여 만 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학교운영에 있어서 불법·부당한 혐의에 대하여는 총장 및 관련 교직원을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라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이번 사태조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제도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발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릭 워렌 목사

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어려운가?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의 조언

새들백교회(Saddleback Church)의 릭 워렌(Rick Warren) 목사는 최근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올바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때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기회를 드리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길 원한다. 마음은 굳어지고 듣지 않으려 한다”면서 “당신이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물론 당신과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그들은 삶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릭 워렌 목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정신적 장벽’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장벽 중 첫 번째는 자존심이다. 크리스천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일을 처리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아마도 그분의 메시지에 대해 닫혀 있을 것이다.

다음 장벽은 두려움이다. 릭 워렌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아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의 지도력을 감지하면 어떤 종류의 종교

적 광신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워렌 목사는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말하기 전에 마음의 쓴 뿌리를 극복해야 한다. 릭 워렌 목사는 “상처, 분노 또는 원한을 붙잡을 때, 당신의 마음은 단단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냉담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마저 방해할 것”이라며 자신의 분노를 떨쳐 버릴 것을 권유했다.

그는 “그것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라면서 “분노는 사람들이 최고의 삶을 살 수 없도록 하는 자의적인 상처이며 그것을 내버려둠으로써 압제자들을 풀어주려 하지 않고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인생의 모든 것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보내는 것처럼 ‘영원한 현실’에 집중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다. 당신이 있는 건물, 당신이 쳐다보고 있는 컴퓨터나 핸드폰, 그리고 심지어 당신의 몸까지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며 “그러나 당신이 주변에서 볼 수 없는 것은 영원할 것이다. 그 현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제시 헤르난데스가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NBC 로스앤젤레스닷컴 보도화면

하수도에 갇혀서 기도...기적적 구조

“유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확률 매우 적어”

LA의 한 소년이 12시간 동안 하수도에 갇혀 있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된 사건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간증했다.

제시 헤르난데스(13)는 지난 1일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LA의 하수도 파이프에 빠져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12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리피스 공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부활절을 보내던 그는 버려진 건물에 들어갔다가 하수도로 연결된 구멍에 빠졌다.

그는 NBC4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절망적인 순간에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고 기도했다. 두려웠다”고 말했다.

LA소방서의 에릭 스콧 소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유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매우 낮다”면서 “솔직히 말하자면, 그를 발견했을 때 우린 정말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마치 기적과 같은 일이다. 뚜껑이 열리고, 제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입이 저절로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헤르난데스가 들어간 건물은 하수처리장으로 사용되다가 해체된 후 버려진 건물이었다. 그는 나무로 된 널빤지 위로 뛰어올랐다가 널빤지가 부서지

면서 하수구로 빠진 것이다. 그는 약 8m 아래의 하수도 속으로 떨어졌다.

헤르난데스는 “정말 조용했고 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완전 어두웠다”고 말했다.

실종된 그를 찾기 위해 대규모 수색이 시작됐다. 시청 직원들은 검색이 집중된 약 2km의 파이프 안에 2대의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했다. 구조대원들의 수색을 도와준 것은 바로 이 카메라였다.

새벽 5시 30분 경, 환경미화원들이 134번 고속도로에 또 다른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맨홀을 들어올렸을 때, 헤르난데스를 발견했다. 그곳은 헤르난데스가 하수도에 빠진 곳에서 동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이었다. 스콧 소장은 NBC4와의 인터뷰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약 2km의 하수구 라인을 포함해 배관 부분을 다 살피면서 제시가 있을지도 모르는 지역을 파악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헤르난데스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소독치료와 검사를 받고, 아무런 이상없이 퇴원했다. 사건 이후 LA시는 헤르난데스가 하수구 파이프에 떨어진 건물 주변에 새로운 울타리를 설치하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열려진 창문을 막아두었다. 또 헤르난데스가 빠진 구멍의 덮개도 새로 보수해 두었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EM예배 (1부)오전9:30
EM예배 (2부)오전11: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1:00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MP서울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T. (818)363-5887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el: (323) 837-0900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gmail.com

O.C. / 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생(1부)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에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0:00
3부(영어) 정오12:00 한국학교(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10: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2: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말씀독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한국학교(토) 오전 9:0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국학교 오후 6:00(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11:00am) 금요찬양(8:00p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일 두번씩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본어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오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C학원(1부) 오후 2:00

권혁민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목요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FAMC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김한오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금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미루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서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8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람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시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어예배(EO)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새 사람을 일으라 (엡4:24)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L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제25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3번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8년 6월 16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협찬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가주처과 대표 오득재 원장,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솔종합보험,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재), 라이온스클럽, 올림픽 칼국수, M.G.M

후원 기독교일보, FH미선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6~7살 1~2명 모집) 초보가능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사명으로 환란과 죽음을 넘어서다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사도행전에는 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생애가 많은 분량에 걸쳐서 할애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9장과 13-28장 전체가 사도 바울에 대하여 할애되어 있으니 사도행전의 약 3분의 2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선교여행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3차에 걸친 전도 여행과 로마 여행, 그리고 로마를 거쳐 스페인에 이르는 선교에 대한 갈망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많은 시간에 걸쳐서 광범한 영역으로 선교 여행을 한 것은 자신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이 회심하였을 때, 이미 그의 사명에 대하여 경건한 다메섹의 신자인 아나니아를 통하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주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 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였는지 그는 다음과 같이 진심어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

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자제시켰습니다. 가이사라에 이르러서 빌립 집사의 집에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피로 자신의 수족을 잡아매고 바울이 이처럼 결단당하는 죄인의 몸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집에 있었던 바울의 선교팀 모두가 이 예언을 듣고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을 눈물로 막아 나섭니다.

바울은 여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행 21:13)고 단언합니다. 바울의 사명은 예루살렘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사명이자 존재의 이유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버리고 사는 일보다 사명을 위하여 죽기를 원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사명, 교회를 위한 사명, 선교를 위한 사명, 그리고 국가를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거나 명예, 안락함과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의 목숨보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만 들어줘도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한 여성도님이 이혼을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여성도님은 침을 삼키며 단호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은 봄이 되면 벚꽃이 만개했어요. 산들바람 불면 벚꽃잎들이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눈이 오는 것과 같았죠.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도 벚꽃 피는 계절에 결혼해야 겠다 생각했었어요."

목사님이 맘이 급해져서 이야기를 끊고 다시 묻습니다. "이혼하시려는 이유가 뭐죠?" 여성도님은 바로 말을 이어 갑니다. "네,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비를 낳게 되었어요. 아주 예쁜 딸이었죠... 저를 속 빼담은 딸이었죠."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는 여성도님께 목사님은 다그치는 듯 또 물었습니다. "예,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혼 이유가 뭘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참 분위기를 타고 있던 여성도님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말합니다. "아 그거요? 남편과는 도무지 말이 안 통해요"

어쩌면 이분은 이혼 상담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아내의 정

의 차이에만 있을까요? 저는 요즘 북한과 얽여 돌아가는 정치구조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예민한 문제들도 '느끼고' '이해하는' 차이로 보입니다. 사드 문제를 생각할 때, 위협적인 북한이 코앞에서 핵실험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계속 실험하는데,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설치하는 사드를 중국이 시비를 걸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자기 나라 앞에서 일어나는 남북한의 일에 라이벌 미국이 가공할만한 무기를 들고 코앞까지 쳐들어오는 모습이 불편한 것입니다.

동시에 미국이나 중국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순수하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자기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적인 포석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팽팽한 긴장의 외줄을 타는 외교 전쟁에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생각하게 됩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정상들이 만나 풀어가야 할 예민한 문제들이 과연 통역으로 해결될지 아쉽기만 합니다. 어쩌면 통역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들어주면 부부관계도 정치문제도 풀릴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외침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우리가 말하는 다문화주의의 역사는 20세기 초 동화정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최초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캐나다에서였다. 1965년 캐나다의 '이종언어와 이중문화 위원회'가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1971년부터는 캐나다 내에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을 이르는 용어가 다문화주의였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에서도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를 1990년 이후부터 언론이나 정부에서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다.

사실 미국은 1609년 영국인들이 버지니아 해변에 도착해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과 만났을 때부터 수백년 동안 다인종, 다문화 사회였다. 그러함에도 미국은 20세기 초반까지 '백인의 나라'라는 정체성을 고수해 왔다. 다시 말해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계나 원주민, 아시아계 등 유색인종은 미국 사회 내에 살면서도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계의 경우 1867년에, 원주민의 경우 1924년에 시민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남부 사회에

동등한 시민권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으며 그는 일부 과격파 흑인들을 어르고 달래서 비폭력 운동을 펼칠 것을 호소했다. 그리고 그 결과 196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지만 1968년 4월 4일에 과격파 백인단체의 인물인 제임스 얼 레이에게 암살당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그의 인권운동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목적과 인약에 근거한 '다문화 회복운동'이었다고 이해하여 볼 수 있다. 세계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은 결코 민족적 혈통에 근거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4일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백인 인종 차별주의자에 의해 암살당한 날이다. 오늘 우리는 그가 외쳤던 "나에게는 꿈이 있다" 연설을 기억해 본다. 아마 그가 죽기까지 외쳤던 그의 꿈은 여전히 유효한지 모른다.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며 주님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명령 앞에 순종의 삶을 살기를 다짐해 본다.

그의 인권운동은 흑인이 백인과

청빙공고

나성제일교회 유초등부

샬롬! 나성제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유일한 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김문수 목사님께서 담임목사로 부임하신 이후로 새로운 비전을 품고 믿음의 도약을 이루고 있으며 함께 동역할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1.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데 신분상 문제가 없으신 분
2. 이중언어가 가능하신분
(영어가 능통하지 않아도 기본소통만 가능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1. 이력서 (가족관계, 사역경력, 학력 포함)
2. 신앙 간증
3.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lakfpc@gmail.com



김문수 담임목사

〈서류 제출 마감〉 사역자가 청빙 될 때 까지

〈문의 전화〉 T. (213)388-7101

신간 도서

몇 살입니까

이세두 | 홍성사 | 264쪽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성숙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신앙적 '나'가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이야기한다. 연대기적·종교적·개인적·관계적·가정적·공동체적 나이를 묻는 여섯 가지 질문을 통해 개인의 성숙을 넘어, 가정과 한 몸 된 관계에까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다. 가정교회 목회자가 내놓은, 교회에서 싸우며 얻은 지혜를 담은 잠언서라 할 수 있다.



추천 도서

25년차 선교사, A부터 Z까지 선교의 핵심정리

“현장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 이론보다 중요”

고교 3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하고 의과대학을 다니면서도 선교를 가까이 하다 1992년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출발해 25년간 사역에 동참했던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녹여낸 책이다. 제목 그대로, 여행갈 때 즐겨 보는 현지 소개용 '가이드북' 같은 책이다.

저자는 “선교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바로 바로 열어볼 수 있는 정리된 실제적인 선교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늘 있었다”며 “선교를 준비하고 그 길을 걷어가는 후임들을 지원하고자 그런 책들을 기대하다가, 오히려 제가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많은 선교 강의와 만남 시간 가운데 받았던 다양한 질문들 중 반복되는 것들을 모아 책을 만드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됐다”며 “학문적으로는 많이 부족할지 모르나, 선교 관심자부터 현직 선교사들까지 실제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책에서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헌신을 다짐하면서부터 선교를 나갈 때까지 준비해야 할 일들, 그리고 선교사로서 정착하고 실제로 사역할 때 필요하거나 한 번쯤 생각하게



선교 핸드북 심재두 비전북 | 319쪽

일로 △교단과 교회와 선교단체의 연합과 협력 △선교사들의 연합과 협력 △사업 선교와 재정을 자립할 수 있는 전문인 선교에 집중 △교회와 단체의 선교 관심자와 헌신자를 등록하고 계속 추적하고 격려하고 훈련하기 △성도들이 소천하기 전 재산 일부를 선교에 기부하는 운동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론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며 “생애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은 6개월에서 2년 사이의 단기 선교를 경험해보기를 권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장기 선교사로 살면 더욱 좋을 것”이라는 말로 책을 통한 ‘선교 동원’을 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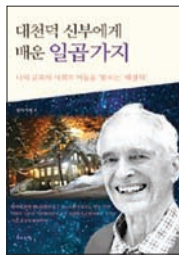
원동교회의 파송과 GMP(개척선교회) 소속이며 1980년 KCMF(한국누가회) 원년 멤버로서 간사 대표와 사무총장을 역임한 저자는 1993년부터 알바니아에서 교회 개척과 의료 사역을 감당해 왔다. 현재 의료선교회 이사, 한국누가회 선교부 이사, 하나반도의료연합 이사, 한국로잔위원회 전문인사역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대전덕 신부에게 배운 일곱 가지

정미가엘 | 사차원 | 212쪽

저자는 한국교회가 사회에서 신앙이 어떻게 발현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않았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결핍은 개인주의와 더불어 교인이 자신에게도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제를 신앙과 연결해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의식을 가로막았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많은 교인을 공평과 정의에 무관심하게 만들었다. 그 해결책을 대전덕 신부의 가르침에서 찾는다.



‘자녀의 인간관계와 사회적 성공’ 결정하는 5가지

모든 인간관계와 직업 선택의 핵심요소, 아버지

미국의 저명 심리학자이자 대인관계 카운슬러로 지난 24년간 가족관계에 대해 집중 연구한 저자가, 사람들의 인생에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력을 분석해 ‘자녀의 인간관계와 사회적 성공을 결정하는 5가지 아버지 유형’을 제시한 책이다.

원제 ‘The Father Factor: How Your Father’s Legacy Impacts Your Career’이기도 한 ‘아버지 요인(father factor)’이란,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는 아버지의 태도, 행동, 가치, 직업 윤리,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유형 등을 의미한다.

저자는 이 ‘아버지 요인’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직업 선택과 경력 발달을 결정하는 기초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능력과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아버지의 독특한 양육 방식이 우리의 경력과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아버지 요인’을 형성하는 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 요인’을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에만 우리의 업무와 진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아버지 요인을 의식하고 다루는 방법을 배운다면 오히려 힘

되는 각종 자료와 소재들이 망라돼 있다.

재정 모금, 유언장 및 연명치료 중단, 현직인 도우미, 선교사와 건강, 실수와 실패, 선교사의 분노, 사역 등급, 비즈니스(사업) 선교, 신학과 선교학 학위, 안식년과 한국 방문, 지휘소 또는 통제소, 이슬람 선교, 선교 동원 등 현장에서 직접 뛰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흥미로운 주제들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 선교의 재부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요소 아버지 스테판 B. 플터 | 송중용 역 비전북 | 364쪽

7가지를 체크할 수 있게 한다.

이후 자녀들이 본인의 일에 무관심하거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성취지상주의형 아버지’, 자녀들이 정서적 불안감을 느끼며 혼란과 두려움으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시한폭탄형 아버지’, 자녀들이 인간관계에 소극적이며 정서적 유대감을 갖기 어려운 ‘수동형 아버지’, 자녀들이 버림받고 거부당한 경험으로 깊은 정서적 상실감을 갖는 ‘부재형 아버지’,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자긍심과 공감과 일관성을 갖는 ‘배려하는 멘토형 아버지’ 등 5가지 아버지 유형을 소개한다.

이 책은 당연히 ‘배려하는 멘토형 아버지’로의 길을 안내하고 있다. 우리의 직업 경로나 직장 행동, 인간관계 형성에 아버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삶의 모든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버지를 비난하는 ‘게임’을 끝내야 한다. 아버지는 분명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삶에 아버지는 손톱만큼도 책임이 없다. 어른이 되는 일 가운데 가장 무서운 부분은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의 삶과 자신이 한 선택에 100%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넘어서기 위한’ 7 단계를 제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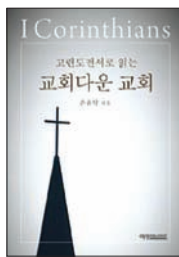
저자는 “끔찍했던 아버지와 관계를 극복하고 자신들의 얘기를 들려준 이들에게 이 책을 헌정한다”고 했다.

이대웅 기자

고린도전서로 읽는 교회다운 교회

손윤탁 | 예영 | 340쪽

성경 주석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가며 본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해 성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리한 책이다. 고린도전서를 본문으로 삼은 것은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서신이기 때문이다. 고린도교회의 당시 상황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교회 소그룹이나 셀 모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찬돼 있는 것도 특징.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오바마 케어 벌금면제 ~성경적이며 저렴한 의료비 해결책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헬스케어” CHM의 특징: •미주 최초, 최대의 의료협동조합입니다. •일반 건강보험보다 60%이상 저렴합니다 월(\$45-\$150/인). •지병/신분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의사/병원을 선택하고, 한국의 병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임신/출산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비 혜택후 할증되지 않습니다. *CHM 한인지원센터 714.738.1234 (교회, 사역자, 회사등 그룹가입 문의는 Ext.404를 눌러주세요) 251 E. Imperial Hwy. #410, Fullerton, CA 92835 / www.chman.org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환전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영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엮습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 *리프팅 라인 4회 \$999
-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류마티스 관절통증 }
 ✓ 발가락 { 퇴행성 관절통증 }
 ✓ 마디관절 { 손목, 발목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ww.sellacare.com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서울대학병원/암센터내 샀고려대 안암병원내 샀

입점

혈액 · 혈관 · 기운 · 면역

-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산성 3.5 6.0 7.0 8.5 9.0 9.5 10 알칼리성 셀라케어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최후의 만찬, 성령강림 등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입구



마가의 다락방의 천장과 창문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69)

최후의 만찬과 성령강림이 이뤄진 다락방

예루살렘은 많은 산들로 이루어져 있다. 마가의 다락방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이스라엘 디아스포라의 중심인 시온 산이다. 예수님 무덤교회 방문을 마친 후, 크리스천 지역을 지나 약간 길이 협소하고 소란스러운 상가 지역인 아랍 무슬림 지역을 지나면 성의 서남쪽을 향한다. 이곳은 유대인 지역으로서 이스라엘 역사 시대의 성벽 일부를 볼 수 있으며 로마 시대의 대로도 볼 수 있다. 아르메니아 지역을 지나면 성의 서남쪽 성문을 만나는데 이 성문이 바로 시온 문이다. 시온 문을 지나면서 성문 벽을 바라보자, 육일전쟁의 흔적으로 여기저기 포탄 자국과 총탄 자국을 발견할 수 있다.

시온 산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며 영적인 쉼터이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중심 지역이다. 언제부터 시온 산이 이스라엘의 마음의 고향이 되었을까? BC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하며 울었던 것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겠다.

지금 이곳에는 유대인 학교와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자리를 잡고 있다.

마가의 다락방과 다윗 왕의 무덤

이곳에 마가의 다락방과 다윗 왕의 무덤이 있다. 성 안에서 나와 오래된 교회의 담 벽을 타고 남으로 가다보면 자그만 아치가 나오고 2층 집을 만난다. 조그만 문을 통과하여 계단을 타고 오르면 다락방의 입구로 들어갈 수 있다. 다락방 입구에는 유대인 경비가 자그만 책상을 두고 앉아 있다. 때문 이 경비가 다락방에 들어와 요란하게 기도하는 그룹들을 제지하기도 한다. 약 120명이 들어갔다고 하는 이곳은 지금도 그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지금 이곳에서는 무슬림의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전면의 제단과 창문에 새겨진 코란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다락방 우측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는 모스크의 상징인 둥근 돔과 돔 위의 초생달을 볼 수 있다.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기둥에 펠리칸(Pelican) 새가 조각되어 있다. 펠리칸은 부리로 가슴에 피를 내어 새끼에게 먹인다 한다. 그래서 천주교는 펠리칸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새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새가 조각되어 있는 것이다.

이 다락방의 아래층은 다윗 왕의 무덤과 유대교의 회당이 자리하고

있다.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과 다윗 왕의 무덤이 같은 건물의 1층과 2층에 자리하고 있을까? 비잔틴 시대 성경에 따라 건물 지을 때 물을 지었기 때문이다. 역사가 흐르면서 다락방이 변하여서 다락방 안에는 무슬림의 상징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 역사적인 다락방은 지금도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영적 전투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AD 30년 유월절이 다가온 어느 봄날 제자들은 스승에게 유월절 만찬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물었고 주님은 성 안에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 그의 주인집에 들어가서 “스승이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가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러니 거기서 예비하라고 하셨다. 당시에는 성 안이었던(오늘날은 전술한 것 같이 시온 문 밖에 다락방이 위치하고 있다.) 이 넓고 큰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이 열린 것이다.

마26:26-30, 막14:12-31, 눅22:15-20, 고전11:23-25에 보면, 예수님은 이곳에서 열두 제자와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몇 가지 일을 행하셨다. 첫째는 성찬식을 제정하셨다. 떡으로 몸을, 잔으로 피를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다. 둘째는 주님을 파는 자를 지적하시며 화가 있음을 말씀하셨다. 셋째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지적하시며 오늘날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서병길 목사
전 GMS 파송
이스라엘 선교사
폴리신학교
선교목회학 박사

(막14:27-31, 눅22:24-34) 넷째는 세족식을 하셨다.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곳

부활하신 주님은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다. 전통적으로 이 장소를 이 다락방으로 보기도 한다.(막16:14-18, 눅24:36-43) 주님은 못 하신 손과 발까지 보여주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까지 제자들 앞에서 잡으셨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것을 말씀하셨다. 주님의 승천 후 제자들은 저희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갔다. 이곳에서 유대 대신 맛디아를 제비뽑아 열두 제자를 채웠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오순절 날을 기다리며 기도예로 전무하였더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고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으며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행1:12-2:47)

이제 교회는 초대교회를 넘어 기독교 박해 시대와 공인 시대, 중세와 근세를 거치면서 현대에 이르게 되었다. 성령전이나 성령의 강림에 대하여, 초대교회의 형성과 발전에 대하여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는 성령의 은혜로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오늘날 이곳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것은 행12:12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마가의 집이라기보다는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과부로 아들 마가 요한을 신앙으로 양육한 초대교회의 든든한 후원자로 보면 될 것 같다.

후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이

라고 지칭한 것은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과 흠여머니와 살고 있어 가부장적 승계 개념으로 아들의 집일 수 있다는 것에서 유래한다. 여기서 말하는 다락방(삿3:20)은 당대에 빈번했던 건축 양식으로 옥상이나 부엌 위에 2층처럼 만들어 물건을 넣어두거나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비교적 큰 규모의 방이다.(막14:15)

이 다락방은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구속사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다. AD 4세기 요한(Vescovo Giovanni 386-415) 주교에 의해 최초의 바실리카 형식의 교회가 발전하기 전까지 이 다락방은 초대교회의 구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기억된다. 614년에 파괴된 이 교회는 십자군 시대에 최후의 만찬 기념교회(Coenaculum Cenacle)로 재건축되었지만 이슬람에 의해 다시 파괴되고 1333년 나폴리 왕 로베르토에 의해 당시 지배자 술탄으로부터 이곳을 매입하여 프란체스코 형제회에서 2층의 기념교회를 지어 최후의 만찬교회라 불렀다. 지상 1층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교회(요13:1-20), 다윗의 무덤(행전2:29), 도마 기념 예배당(요20:24-31)이 있었고, 위층에는 최후의 만찬 기념교회(막14:12-26)와 성령강림 기념교회(행2:1-13)가 있었다. 1552년 2층이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됐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이스라엘 정부의 소유가 되었다. 전에는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유월절 목요일과 성령강림 기념일만 예배도록 하다가 지금은 2층을 완전 개방하여 모든 기독교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속)



다락방의 내부 모습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원)

신입생, 편입생 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1)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미주내), 개혁 장로회 한미 연합총회(한국과 미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참, (진리의길)
알, (학문의 길)
살, (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M.A 석사과정 | 48학점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L.A, CA 90057

하나님의 치료와 믿음의 승리

치유회복

HEALING & RECOVERY

수요치유예배

너희가 내 안에 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라
 -요한복음 15장 7절-

나눔과 섬김의 교회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276 S. Rampart Blvd.L.A, CA 90057
 Tel: 213-272-6031

“기도에 응답하심을 보여주는 산 증인이 바로 나” 피터 야섹 선교사, IS와 함께 했던 수감생활 자세히 공개

체코 출신 피터 야섹 선교사는 최근 수단에서 14개월 수감돼 있는 동안 동료 수감자를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IS가 자행한 고문에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나누고 싶다”면서 자신의 간증을 전했다.

체코 공화국 이전 공산주의 체제에서 성장한 야섹 선교사는 많은 기독교 박해를 경험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열렬한 기독교 신자인 부모님이 모두 사라진 일도 있었다. 비밀경찰에 체포되어 심문을 받았던 것이다. 야섹 선교사는 이런 신앙을 배경으로 자라나 대학에서 분석화학과 물리화학을 공부했고 졸업 후 임상 화학, 혈액학, 수혈을 공부했다. 이후 한 병원의 원장으로 10년 동안 재직했다.

야섹 선교사는 1990년대부터 전세계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쏟았으며, 1992년에는 체코 순교자의 소리를 공동 설립하였다. 2002년 이후 미국 순교자의 소리 전임 사역자로 일하고 있다. 그는 수년 간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해 수 차례 수단을 여행했다.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 받은 마지막 여행에서 그는 수단의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처한 곤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지낸 지 445일 만에 오마르 알 바시르(Omar Al Bashir) 수단 대통령의 사면을 받았다. 현재 새롭게 자유를 얻은 그는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수단 기독교인들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힘쓰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 비엔나의 맥린바이블처치에서 열린 순교자의소리어드밴스 콘퍼런스(VOM Advanced Conference)에 참석한 그는 작년 수단에서 석방된 이후 처음으로 수감생활을 자세하게 언급했다.

야섹 선교사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나는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심을 보여주는 산 증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5년 12월 수단으로 여행을 갔을 때, 간첩과 반역 혐의로 정부에 붙잡혔다. 수단에 4일간 머물 예정이었던 그는 2017년 석방되기 전까지 무려 445일을 갇혀 지냈다. 당시 야섹 선교사는 5곳의 교도소를 전전해야 했다.

그가 교도소에 들어온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이슬람국가(IS) 대원이 들어왔다. “그들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즉각 알아차렸다. 이들은 매우 나쁜 방식으로 나를 점점 놀리기 시작했고, 결국 난 그들의 노예가 되었다. 옷을 빨고, 모든 식기를 씻고, 맨손으로 화장실도 청소해야 했다. 그들은 단지 날 놀리려고 했고, 난 저항하지 않았다”고 야섹 선교사는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단순히 그를 놀리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야섹 선교사는 “이들은 점점 공격적이 되었고, 어떻게 하면 나를 괴롭힐 수 있을지 연구했다. 결국 나를 높은 뒤임을 막고 얼굴에 물을 붓기로 했다. 이는 마치 물에 빠진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이들은 체코 정부가 CIA에 알카에다 대원들을 상대로 한 물고문을 허용했다고 주장했거나 사실이 아니었다”고 했다.

물고문이 있기 전날, IS 대원들은 야섹 선교사에게 순교자의 소리(VOM) 수단 지부가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그를 심문했고, 그의 대답이 맘에 들지 않을 때마다 막대기로 때렸다.

야섹 선교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그가 기도할 때, 주님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방식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한다. 그는 “그분도 조롱을 당하고, 짐 배음을 당하고, 막대기로 맞으셨다.

주님은 내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초자연적인 평안을 주셨다”고 고백했다.

또 그가 감옥에서 심문을 받고 있을 때, 그의 아내는 집에서 성경공부 중이었다. 당시 모임을 이끌던 리더는 성경공부를 중단하고 그가 처한 상황을 놓고 기도했다고 한다.

“그들은 성경읽기를 멈추고, 이 상황 속에서 주께서 역사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했다. 내가 집에 돌아온 후, 그 시간이 IS 대원들이 나를 폭행하는 가운데 초자연적인 평화를 경험했을 때와 정확히 같은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는 간증했다.

교도소에서는 성경을 접할 수 없었다. 건강 상태가 점점 악화되면서 그는 어릴 때 외웠던 성경구절을 겨우 기억할 수 있었다. 그는 “말 그대로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성령께서 내가 외웠던 성경구절을 계속 기억하게 해주셨고, 이는 내가 매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기에 충분했다”고 전했다.

야섹 선교사는 구타와 굴욕감을 겪으면서도, 가해자들이 밤 늦게까지 잠을 자지 못할 때 그들의 필요를 목격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들은 울고 있었고, 가족들을 그리워했다. 그들은 또 신계 도움을 청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을 위한 기도를 더 쉽게 지속할 수 있었다. 난 동료 수감자들, 심문자, 교도관, 검사들, 판사들에게 구주되신 주님이 나타나주시길 기도했다.”

다행히 야섹 선교사는 IS 대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교도관 덕분에 물고문을 피할 수 있었다. 그는 주님께서 그를 위해 교도관을 통해 역사하셨다고 느꼈다. 그는 “이



피터 야섹 선교사 ©순교자의 소리

후 교도관에게 ‘당신이 나의 생명을 살렸다’고 말했고, 우리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난 그에게 이메일 주소를 전달했고, 그와 함께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매우 열정적인 인물이었고, 그가 만약 유럽으로 온다면 우리 집에 머물면서 그를 돌볼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고 말했다.

몇 차례 다른 교도소로 옮겨진 그는 함께 수감된 2명의 수단 목회자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교도관들이 이를 허락한 것이다.

야섹 선교사는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이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전했다. 교도관들은 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설교의 내용을 보고했다. 이후 2명의 수단 목회자가 더 오게 되었고, 이들에게 전혀 나쁜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는 “교도소 안에 있던 자들은 살인자, 강간범, 강도, 마약 거래자들이었다. 설교 시간은 너무 은혜로

웠고, 이들은 우리의 가르침에 반응했다. 우리 단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는 자들이 나타났다. 너무 아름다운 일이었다”고 간증했다.

야섹 선교사는 “모든 어려움과 주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방식보다 주님의 방식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누군가 삶을 주님께 드릴 때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예수 안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누구나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난 마치 삶을 되돌려 받을 줄 알았다. 그 이후엔 종신형이었다. 그 때 내 생명은 다시 찾아진 것이다. 주께 ‘제 생명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라고 기도했다”고 덧붙였다.

강해진 기자

NBA 선수들이 경기하다 단체로 기도한 사연

미국 프로농구 경기(NBA)에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새크라멘토 킹스가 경기를 멈추고 양 팀 선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펼쳐졌다. 그 중심에는 ‘ 덩크왕’, ‘NBA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새크라멘토의 빈스 카터(Vince Lamar Carter) 선수와 골든스테이트의 신인인 패트릭 맥카우(Patrick McCaw) 선수가 있었다.

지난 4월 1일 경기 3쿼터 종료로 앞두고 접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때 득점 기회를 엿보던 맥카우가 림

을 향해 점프했다. 상대편이었던 카터는 이를 저지하려 했고, 그 과정에 맥카우와 충돌, 맥카우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떨어졌다.

맥카우는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통증을 호소하며 일어나지 못했고 카터도 크게 당황했다. 한참을 그의 곁을 떠나지 못한 카터는 결국 눈물까지 보였다. 맥카우는 들것에 실려 코트를 빠져나갔고, 그 직후 남은 카터를 포함해 두 팀 선수단 모두 모여 그의 건강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린 것이다.

골든스테이트에 따르면, 맥카우는 현재 요추 타박상에 대한 X선, MRI, CT 촬영 등의 조치를 모두 마치고 퇴원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카터는 “그와 같이 젊고 유능한 선수가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그가 쾌창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맥카우도 자신의 SNS를 통해 “모두의 염려와 기도에 감사 드린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봐 주시는 것을 확신한다. 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소식을 전했다.

김신의 기자



양 팀 선수가 패트릭 맥카우 선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NBC 스포츠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위(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11626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8,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ou.edu, aeu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처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 (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땀과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박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장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마이클 호튼 박사(오른쪽)가 강의하고 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믿음 하찮게 여긴다”

마이클 호튼, 코어 크리스챤너티 세미나에서 강연

지난 9일 '마이클 호튼의 코어 크리스챤너티 세미나(Core-Christianity Seminar)'가 안양 열린교회(담임 김남준 목사) 본당에서 개최됐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나를 발견하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주강사인 마이클 호튼 박사(Michael Horton)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서 기독교신앙의 핵심까지(From Christless to Core Christianity),'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Finding Ourselves in God's Story)'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 강의했다.

먼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 대해 마이클 호튼 박사는 "조나단 에드워즈 이후 부흥운동은 '평범한 일상에서의'(Ordinary) 하나님 은혜의 수단과 떨어져 버렸다. 점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이 아니라, 흥분되고 특이하고 특별한 수단들과 축복만을 추구하게 됐다"며 "복음 선포를 통해 미국인들을 열광시켰던 조지 헛필드는 첫 번째로 '연애인 같은' 부흥사였다. 그래도 그에게는 설교와 믿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마이클 호튼 박사는 "그러나 찰스 피니는 완전히 다른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그는 '이신칭의'를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각각 다른 상황에서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좌우된다고 생각했다"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열심히 사역했다'는 이유로 위대한 전도자 중 한 사람으로 여기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세속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호튼 박사는 "외부의 자유주의자들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복음주의 운동 내에서 기독교 자체가 재정의되고 있다"며 "교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와 전도의 운동들이 그 실질

적 결과가 세속화로 드러났는지 모른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는 명분 하에, 찾은 자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기독교인들과 복음주의자들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대학교 2학년만 되면 대부분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며 "마음 아프지만, 이런 현상은 한 방향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교회는 바로 세속화의 공장이자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이클 호튼 박사는 "단순히 기독교 교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하찮게 여기는 현상이다. 요즘 교회 중고등부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느 집 피자가 가장 맛있는가'이다"며 "복음을 당연히 전제하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 세속 문화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지지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의 세 가지 특징으로 '도덕적·치료적·이신론적' 3가지를 꼽았다. 먼저 '도덕적'에 대해 "종교의 기본 목적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 말한다. 도덕적 메시지는 하나님이 계신 이유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정도라고 여긴다"며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음악처럼, 우리의 메시지를 이런 적당한 배경음악 정도로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했다.

'치료적'에 대해선 "죄는 역기능이나 장애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측면이 없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만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메시지"라며 "그러면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필요없고, 구원은 '회

복'에 불과하다. 많은 설교에서 '치료'라는 말을 쓰진 않지만, 실질적 개념이 치료일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신론적'에 관해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은 태엽을 감아놓은 듯 저절로 굴러가고 하나님은 관여하거나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라고 했다.

호튼 박사는 "오늘날 종교적이라는 건 용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 여긴다"며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이신칭의와 은혜에 대해 이 정도로 모른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는 해결책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 대한 해결책은 '그리스도로 가득한, 딱 찬 기독교'이다. 단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가득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강의에서 마이클 호튼 박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했다. 그는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는 지키고자 했던 것을 성취할 수 없게 됐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지 않고, 대신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며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주겠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이후 계속 언약의 신실한 파트너였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신실하지 못했다"고 했다.

호튼 박사는 "우리는 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그 이야기의 조연으로 출연하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며 "코어 크리스챤너티(Core-Christianity), '기독교 신앙의 핵심'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산다는

여성들이 더 종교적인 이유는?

“노동력 참여와 교육 성취도와 관련” 주장

수십 년 동안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종교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종교성에 대한 최신 연구는 지난 2014년 퓨리서치센터에서 진행된 '미국의 종교동향연구(U.S. Religious Landscape Study)'였다.

연구 결과, 미국 기독교인 여성 10명 중 7명(72%)이 종교가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 기독교인 남성들(62%)에 비해 높은 수치다. 또 대략 10명 중 8명의 여성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답했고, 남성의 경우는 10명 중 7명이 그러하다고 답했다.

최소 매일 기도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74%였으며, 남성은 60%였다. 또 여성들의 경우, 예배 참석률이 남성들보다 높았다.

이같은 성별의 차이를 설명하는 한 가지 근거는 노동력 참여에 있다. 학자들은 미국과 그 밖의 기독교 국가에서, 노동에 참여하는 이들의 종교적 의식(예배)에의 참여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여성들의 노동력 참여는 지난 1960년대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오늘날 풀타임으로 일하는 여성은 전체의 50%를 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남성(70%)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치다.

이같은 이론은 지난 2016년 진행된 연구에서, 1980년 중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풀타임 여성 근로자들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 여성 예배 참석자들의 비율은 줄어들었

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힘을 얻었다.

예배 출석의 경향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은 여성들의 교육 성취도와 관계가 있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교육을 덜 받은 이들보다 더 종교적이라는 것이다.

2014년의 자료에 의하면, 25~34세 여성들의 38%가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는 동일한 연령대의 남성들(31%)보다 훨씬 높았다.

일부 연구자들은 생물학적 차이를 언급하기도 한다. 사회주의자 존 P. 호프만과 알란 S. 밀러는 남성이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을 더 타고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후에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도박에 여성들보다 더 적극적이라고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남성들은 덜 종교적이다. 이 이론의 초점은 '여성들은 대개 위험을 더 싫어하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 종교에 의지하거나 천국에 안전한 장소를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사회학자 로드리 스타는 이같은 견해를 바탕으로 "남성들이 더 위험을 감수하려는 이유는 테스트스테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여전히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은 실존주의적인 불안함에 직면하기 때문에 종교로부터 오는 안전감과 웰빙을 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다.

연구가 피파 로리스 박사나 로날드 잉글하트 박사 역시 자신들의 연구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는 감정과 안정성이 매우 강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타락 이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와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역할을 부여받아야 한다"며 "복음을 통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단순히 낮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너를 죽이러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마이클 호튼 박사는 창세기 15장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약속을 어느 순간 믿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다"며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한다. 하지만 사탄은 이러한 이신칭의 교

리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호튼 박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법칙을 따라 그저 좋은 사람으로 살 것인가"라며 "복음만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만들어내고, 여러분은 그 약속의 수혜자이다. 그 약속을 함께 듣고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김남준 목사는 '꽃길만 걷는 목회는 없다: 목회자의 고난과 자기죽음(Pastor's suffering and Self-Crucifixion)'에 대해 이야기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교수 줄리어스 김 박사(Julius Kim)는 교재 '기독교 신앙의 핵심(Core Christianity)'을 소개했다.

이대웅 기자

2018 부활절 특별할인 행사

EVENT 1 | 감사패(임직패)할인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드와 크리스탈재질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해드립니다

Wood ~~\$65~~ \$49 / Crystal ~~\$75~~ \$59

고급 케이스 포함

EVENT 2 | Back Drop

고퀄리티의 배경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해드립니다.

새신자 환영 및 각종 행사용 120x96 스탠드포함 ~~\$380~~ \$299

교회 행사 및 새가족 사진촬영 배경으로 강추!!

거치대 무료증정

EVENT 3 | 부활절 배너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다양한 디자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활절 배너 36x120 ~~\$65~~ \$49

부활절 배너 X-banner ~~\$65~~ \$49

CD 프린팅

주보제작

한글봉투

캘리머그컵

담임 목사 Senior Pas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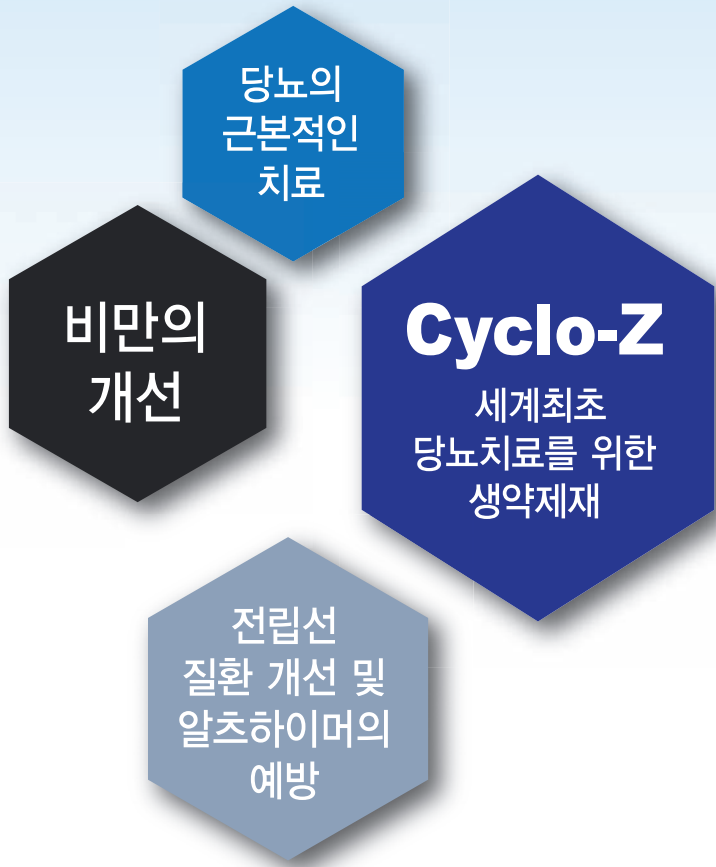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사업체를 섬기는

주님미디어

www.junimedia.com
junimedia@gmail.com
3170 E. 11th Street Los Angeles, CA 90023
323.265.0244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공팔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이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에게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43%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37% 미세혈관 합병증	21% 당뇨병 관련사망	14% 심장마비	12% 뇌졸중
------------------------	-----------------	-----------------	-------------	------------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